

전시 너머의 미술을 만나다... 광주미술관 'ART MAKERS'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새 이름을 달게 된 광주미술관(옛 광주시립미술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미술관(관장 윤익)은 오는 7월 한 달간 문화가 있는 날 특별 프로그램으로 시민 참여형 미술관 아카데미 'ART MAKERS'를 개최한다.

7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전문가 4인 릴레이 강연
예술 유통·큐레이팅·미술교육...동시대 미술 탐색

'ART MAKERS'는 동시대 미술과 전시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미술교육, 문화기획, 예술 유통과 비즈니스 등 확장된 예술 실천 영역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예술인과 문화기획자, 문화예술 종사자는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개 강연 형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7월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미술관에서 총 4회 열린다.

강연은 ▲이장욱 스페이스K 수석큐레이터의 '흔들리는 세계, 미술의 언어' ▲오대우 널위한문화예술 대표의 '널위한문화예술이 목격하는 예술시장의 변화' ▲이소영 조이뮤지엄 대표의 '오늘의 미술은 누가 함께 만드는가' ▲황희승 아티데인 대표의 '상상하고 실천하는 예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장욱 수석큐레이터는 기업미술관 스페이스K에서 전시 기획을 총괄하며 작가의 작업을 공간과 경험으로 확장하는 전시 구성으로 주목받아 왔다.

오대우 대표는 시각예술 기반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아트 미디어 플랫폼 기업 '널위한문화예술'을 운영하며 예술 콘텐츠와 미술시장을 연결하는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이소영 대표는 미술교육가이자 에세이스트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미술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 온 '아트메신저'로 알려져 있다.

황희승 공동대표는 아트 콘텐츠 기획그룹 아티데인의 큐레이터로서 전시와 아트페어, 프로젝트를 넘나드는 다양한 기획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유통과 경험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동시대 미술 환경과 예술 생태계의 흐름을 다양한 시각에서 소개하며 시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광주미술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 감상 중심 미술 경험을 넘어 작품과 전시를 둘러싼 창작·기획·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동시대 미술이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을 함께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일 저녁 시간대 운영을 통해 직장인과 청년층 등 평일 낮 시간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미술관 야간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익 광주미술관 관장은 "미술관은 전시를 관람하는 공간을 넘어 예술을 매개로 시민과 지역사회, 교육이 만나는 열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ART MAKERS'가 시민들이 동시대 미술을 보다 가깝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이장욱 스페이스K 수석 큐레이터 오대우 널위한문화예술 대표 이소영 미술교육가 황희승 큐레이터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 본선 본선 8팀 확정

국내 4팀·해외 4팀... 최종 라인업 공개

오는 10월 동구의 거리를 뜨겁게 달굴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 본선팀이 확정됐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25일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음악축제의 예선심사를 마치고, 본선 무대에 오를 최종 8개 팀의 명단을 공식 공개했다.

이번 대회는 공정성과 글로벌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AC월드뮤직페스티벌을 기획했던 장용석 감독, 세계 무대에 서할 약 20여 팀의 피아니스트 폴 커비(Paul Kirby), 대한민국 최고의 드러머 원익준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지난달 31일 마감한 참가팀 모집 결과 전 세계 56개국에서 총 55개 팀(국내 32팀, 국외 18팀), 1천549명의 뮤지션이 대거 지원해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엄격한 예선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 진출권을 따낸 팀은 총 5개국 8개 팀(국내 4팀, 국외 4팀), 31명의 뮤지션이다.

국내 본선 진출팀으로는 창의적인 팀(Dub)·레게 사운드로 확고한 팬층을 확보한 밴드 콤아겐즈(KOMAGENS), 2025한강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팀 '투엘브'(Twelve) 출신 보컬

로 뛰어난 가창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유하은, 아이돌 밴드 언습생 출신 실력과 멤버들로 구성된 듀오 언오피셜(Unofficia), 그리고 정통 카리브해 라틴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지역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재즈·라틴 밴드 부에나모멘토 가이름을 올렸다.

국의 진출팀 역시 세계 각지의 개성 넘치는 아티스트들로 구성됐다. 카메룬의 전통 음악과 현대 재즈, 클래식을 결합해 유럽 음악계에서 입지를 다져온 월드뮤직 퓨전 밴드 조셉 마소마 트리오(Joseph Massoma Trio), 감성적인 하모니와 독특한 풋드럼(Foot-drum) 연주로 사랑받고 있는 호주 인디 포크 듀오 세이지(Saije), 멕시코 전통 포크 음악에 록, 재즈, 삼바를 결합한 포스트 포크(Post Folk) 스타일을 추구하는 인디 음악그룹 부엔로스트로(BuenRostro), 그리고 시티팝과 솔(Soul), K-POP을 결합한 세련된 사운드로 일본 음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세대 팝 듀오 스코라(suola)가 본선 무대에 오른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본선 진출 8개 팀은 오는 10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광주 동구 충장로 일원에서 열리는 '제5회 광주버스킹월드컵' 무대에 올라 우승을 향한 치열한 최종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64강〉 16. 뢰지예(雷地豫) 중

예괘 초육의 효사는 '명예, 흥(鳴豫凶)이다. 즉 '즐거움에 새가 우는 것처럼 웃고 떠들면(鳴) 흥하다'는 뜻이다.



초육이니 아직은 어리고 성급해 기쁜 일이 도래하는 것을 떠들고 다니니 흥하다. 예괘는 사효 양효(陽爻)를 쳐다보고 다섯 여자가 남자 한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이 다. 그런데 이중 초효만이 응효(應爻)로서 구사와 음양상응(陰陽相應)해 독점하려고 하고 즐거워서 혼자 소리 지르는 것이다. 그러면 흥하다는 것이다.

다른 음들도 있는데 나 혼자만 좋아서 기뻐하면 흥하다. 효사의 '명예(鳴豫)'는 자신의 즐거움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보고 그것에 빠져서 울바르지 않게 교류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모방하니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상전(象傳)에서는 이를 '뜻이 다해 흥하니 지공흥야(志窮興也)'라 말한다.

초효는 실력이 없는데 뒷사람(九四)의 지위나 친밀함을 가지고 까부니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싫은 소리를 듣게 된다. 자중(自重)해야 한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예괘 초육(☳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초육을 만나면, 벼슬한 자는 은총을 기다려야 하는 근심이 있다(則有待恩寵之患/즉유대은총지환). 선배는 한 번 물어 사람을 놀라게 할 징조가 있다(則有一鳴驚人之美/즉유대은총지환). 서숙은 놀라는 우환과 구설 및 막히는 재앙의 어려움이 있으며(則有驚憂口舌及阻厄之難/즉유경우구설급조역자난), 관사(官事)에 당하는 스스로 진술하여야 할 면한다(當言者自陳免禍/당관사자진면화/陳늘어놓을 진)을 얻으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 뒷사람의 지위나 친밀함을 이용해 일방한 재주를 자랑하고 까불고 있는 때다. 자기의 근본은 없고 구사를 따라서 모방하고 있으나 은인자중(隱忍自重)해야 하고 변괘가 중뢰진(重雷震)이 돼 놀랄 일이 있으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

자기는 즐거워야 할 일이 없어 다른 사람(九四)의 즐거움을 보고 그것에 빠져서 울바르게 교류하지 못한다. 예상하고 있던 일들이 모두 빛나거나 자중해야 할 때다.

사업, 거래, 지망 등은 상당히 유망한 듯하나 잘못 판단한 것으로 성사되지 못하니 포기하는 것이 좋다. 이전, 전업 등 외부로부터 유혹하는 사람(九四)이 있으나 아직 때가 아니다. 환담은 겉으로는 좋게 보여도 잘 되지 않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아픔이 있으며 연애한 상대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임태에도 어려움이 있다. 기다리는 사람, 가출인, 분실물은 돌아오지 않고 찾지 힘들다. 병은 설사, 복통, 놀람 등이 있으나 결코 가벼운 증상은 아니다.

'실점'에 '모인(某人)의 운세 여하'를 점해 '예괘(豫卦)

초효등'을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문점자는 어떤 높은 고관(구사)의 힘을 믿고 여러 사람을 희롱하고 상전 노릇하고 있다. 그러자 문점자는 '자기 딸을 고관의 후처(後妻)로 보내 이권을 취하면서 고관의 이름을 사칭해 행세하고 있다'고 이실직고(以實直告)했다. '반성하고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일했다.

예괘 육이(九四)의 효사는 '개우석(☳개우석=대만(大)의 초대(初) 총통(總) 장개석은 자신의 운명 여하를 일사해 예괘 이효등을 얻고, 이효의 효사에서 개(介)와 석(石)자를 취해 이름을 개석(介石)이라고 지었으며 육이(九四)의 자리가 중정의 자리이므로 호를 중정(中正)이라 했다.' 부종일, 정길(介于石不終日, 貞吉)이다. 즉, '절개가 돌에 끼어 있는 것처럼 견고하다. 하루가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내일도 오늘처럼 오는 것이니 굳게 지키면 바르고 길하다'는 뜻이다.



육이는 유순중정(柔順中正)의 효이니 예의 때를 만나 일락(逸樂)에 빠지는 일이 없고 견고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어 오늘날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등 환락의 기쁨에 빠지지 않는다.

상으로 보면 이 삼 사효는 간산(艮山)으로 돌이 고돌처럼 자신을 지키는 상이니 '개우석(介于石)이라 한 것이다. 결국 효사는 '돌과 같이 꺾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하던 일이나 계속해 나가면 바르고 길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상전에서는 '하루 종일 쉬지 않으니 바르고 길하다고 하는 것은 중정하기 때문'이라고 해 '부종일 정길 이종정야(不終日 貞吉 以中正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밤낮으로 고민하고 절개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시기이다. 비록 근심 걱정은 있지만 결과는 좋으니 문제될 것은 없다. 참고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다. 뒷사람에게 아부를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으니 절개를 지키는 것이 좋다.

점사에서 서죽을 들어 육이(☳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육이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금류에서 용퇴해야 한다(德流勇退/금류용퇴). 처음 진취하려는 자는 가히 성명한다(始進取者 可以成名/시진취자 기이성명). 서숙은 이익을 획득한다(常人獲利/성인획리)를 얻으면 쓸데없는 참견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때다.

음효가 음위에 있고 두음 사이에 끼어 있으니 어두움의 극치요 고요함이 지극하다.

하고자 하는 일은 구사까지 삼년(三)월은 기다려야 한다.

육이는 실무의 책임자로 육이의 지시를 받지만 실권자인 구사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어 돌에 끼어 있다(介于石)고 했다. 마치 육이는 신라 말 공예(六五)와 왕건(九四) 사이에 끼어 있는 부하 최웅의 입장으로 육이의 지시를 받지만 결

정적인 순간에는 구사를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 거래, 이전, 전업 등은 옛 것을 지키고 함부로 진출하지 말아야 하고 때를 기다려야 하며 지망은 분수를 넘어서지 않으니 통달하지 않는다. 혼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상대에게 병 등이 있어 좋은 인연이 아니며 잉태는 유산(解卦)의 우려가 있고 임신(臨產)은 어렵고 늦어져 순산(順產)은 어렵다(坤變坎). 기다리는 사람, 가출인은 돌아오지 않고 흩어져 버렸고 분실물은 포기해야 한다. 병은 암, 폐양 등으로 하혈, 설사를 동반하고 고질화하여 치유가 오래 걸리지만 근치(根治)의 희망은 있다.

'실점'에 직무에 근면 성실하나 승진하지 못하고 후임자 밑에서 근무하게 돼 퇴직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낙담한 모관리의 향후 운기 여하'를 물어 육이를 얻고 점고하기를 '예괘는 구사 일양이 혼자 모든 권력을 쥐고 있어 오묘이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때다. 구사의 장관과 응비(應比)한 자들은 모두가 즐거움 속에 놓여 있지만 귀하는 이효를 얻어 구사와 응하지 못한 관계로 즐거움과는 관계가 없다. 오로지 직무를 중히 여기고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개우석(介于石)이라 했고 개(介)란 '기개절조(氣概節操)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금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즐거움을 피하는 것이 향후 대책이니 이를 '부종일 정길(孚終日 貞吉)이라 해 하루가 끝나기 전에 빨리 마음을 바르게 하면 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부터 2년 만을 기다리면 3년 짜인 사효에서 승진 승급할 것'이라고 했다. 역시 그러했다. '고도탄상(高島呑象)'

예괘 육삼의 효사는 '우예, 회지 유희(野豫 悔遲 有悔)이다. 즉 '위를 쳐다보고 즐거움을 탐하다가 뒤우침이 늦어지니 후회가 있다'는 의미이다.



위만 쳐다보고 놀다가 이제 그만 놀아야 하지만 후회가 늦어져서 적절할 시기에 후회하지 못해 회한(悔)이 있고 흥하다.

육삼은 괘 중의 유일한 양효(陽爻)인 구사를 위에 받들고 있어서 구삼 자체는 즐거워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쾌락을 모방하려고 위만 바라보고 있어 아첨한다는 뜻이 강하다. 초육의 명예(鳴豫)와 같으나 흥조를 알고 빨리 뒤우치면 허물이 없는데 기회를 보고 결단을 못하면 후회가 늦어져서 흥하다.

육삼은 초육과 같이 음효(陰爻)가 양위(陽位)에 있어 힘은 약한데 뜻만 강해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한 것이다. 상전에서는 '위를 쳐다보며 즐거워해서 후회가 있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 '우예유희 위부당야(野豫有悔位

不當)라고 말한다.

이때는 바로 뒷사람과 의기투합해 같이 권력을 누린다. 이로 인해 남의 질투가 있으니 이를 조심하고 내부의 적을 항상 경계하면서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 변괘 소과의 상이 나아감(震進)과 물러남(艮退)을 반복하는 모습이니 마음과 뜻이 편하지 않아 뒤늦은 후회가 있다.

점사에서 육삼(☳개우석=하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육삼을 만나면, 범인은 도모하는 배가 결과가 없고 갑자기 잠깐 전진하는가 하면, 갑자기 잠깐 후퇴하며 시비가 한결같지 않다(凡人所圖無實 乍進乍退 是非不一/범인소도 무실 사진사퇴 시비불일)을 얻으면 초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분수와 실력 이상의 일을 추구하여 실패하기 쉽다. 위만 쳐다보고 하늘만 보고 걷기 때문에 발밑에 신경쓰지 못하고 길가의 시공참에 빠져 자신도 곤란하고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

육삼은 구사의 뒷사람과 음양친비(陰陽親比)해 구사의 권력을 함께 누리고 있으나 참다운 덕이 없는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자로 진퇴를 반복하고 마음과 뜻이 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의 질투를 조심하고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할 때이다.

사업, 거래, 지망 등 운기점에서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부족한데 남의 힘을 빌린 경우로 실패하기 쉬우나 축소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좋다. 혼인도 이상이 너무 높아 성사되기 어렵고 잉태도 대감(大坎)의 상으로 출혈이 있거나 너무 차가워 순조롭지 않다. 기다리는 것이나 가출인은 돌아오기 힘들고 분실물도 찾지 힘들다. 병은 뱃속의 종양, 식독 등으로 출혈과 설사가 심하여 치료가 쉽지 않으니 신속한 대치가 필요하다.

'실점'에 '모인의 운세 여하'를 일사해 '예괘(豫卦) 삼효 등'을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예괘는 구사의 일양이 때를 얻어 권력을 쥐고 있어 오묘(五陰)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이다. 문점자는 육삼으로 구사 권력자와 음양친비(陰陽親比)해 의기투합하기 때문에 함께 권력을 누리고 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 해도 남의 질시(嫉視)를 받고 있으니 후환(後患)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인 즉, 문점자는 구사의 권력자가 권력을 잃게 되자 동료들과의 불화와 반감으로 사직(辭職)하고 말했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오전)
-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접전문기양생

